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시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 입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사카부로는 3월 30일에 도쿄도를 웃도는 신규 감염자수를 기록한 이후 병상의 공핍 정도를 나타내는 “중증 병상 사용 률”이 70%를 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4월 7일에 “의료 비상사태”를 선언해 전 부민에 대해 불요불급의 외출 자속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과 14일에 부내의 8개의 시나 마을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도쿄 올림픽 성화릴레이도 공도에서의 주행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히라카타시에서는 13일에 14명의 러너가 히라카타 숙소나 히라카타지역 앞을 지나가는 이벤트도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괴로운 때이기 때문에 시민의 여러분을 기운을 북돋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감염 대책에 만전의 체제를 갖추면서 준비를 진행해 온 만큼 무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벤트나 길가에서의 응원을 기대하시고 있었던 여러분 러너의 여러분, 개최를 향해 진력해 주신 관계자의 여러분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내의 감염 상황의 특징은 제3파를 웃도는 속도로 급격하게 감염이 퍼지고 있는 것 그리고 고령자의 감염이 많았던 1월에 비해 젊은이의 감염 비율이 높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4일의 1주일로는 그 앞의 주의 배가 되는 109명이 감염해 그중 35퍼센트에 맞는 39명이 20대였습니다. 또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감염 경로의 파악은 중요합니다만 경로 불명의 감염자가 61명과 전체의 반수를 넘어 전에 없이 높은 비율인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감염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 경로의 파악과 같은 역학 조사는 물론 건강 상태의 확인이나 상담을 하여 요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자수는 3월 23일에 48명이었던 것이 2주일 후의 4월 8일에는 약 4배의 203명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께는 계속해 마스크 착용이나 소독 소셜 디스토폰스와 같은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부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이상의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불요불급의 외출 자속”의 철저에 아무쪼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4월 5일부터 차례로 65세 이상의 여러분께 접종권을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중에 도착해 있는 쪽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에의 4월분 백신 할당량은 약 1000인분과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에 입소되고 있는 쪽을 우선해서 실시하는 것에 이해해 주세요. 예약 접수나 시민 회관 등에서의 집단 접종 의료 기관으로의 개별 접종은 5월 개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분간 기다려 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4파의 감염 확대는 전에 없이 급격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만 시민 생활을 지켜 빼기 위해 앞으로도 시청이

하나가 되어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레이와 3년 4월 12일
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